

여기서 겸(兼)이라고 하는 것은 6바라밀을 모두 겸하여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며 설법하는 행과 겸하여 6바라밀도 행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6바라밀 모두를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 무리하다. 그러므로 분수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가라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석존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무리한 것을 권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차츰 수행을 쌓도록 인도하고 있다. 방편품 제2에서 '가르침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에서부터 들어와도 된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모래를 쌓아 불탑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도 부처님의 길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설한 것도 하나의 예이다.

그러므로 이 '분별공덕품'에서도 신앙에 들어오는 것에서 시작해 차츰 그 신앙을 깊게 하는 순서를 무리 없이 가르쳐 주고 있다. 이를 천태대사가 정연하게 분석한 것이 바로 '재세(在世의 4신(四信)'과 '멸후(滅後)의 5품(五品)' 입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앞에서 일념신해(一念信解)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마치 5바라밀을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요소가 된다. 또 앞에서는 5바라밀이었던 것이 여기서는 6바라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석존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춘 분이여 위대한 지도자였으므로 세상에 계실 동안

안에 직접 가르침을 받은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감사하다'라고 신해하면 그것만으로도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5바라밀을 행하는 것도 석존의 불해(佛慧)에 의해서 직접 지도되었던 것이므로 수행의 진척도 바랄지였다. 극단적으로 말

다음의 불제자들, 특히 말세의 우리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배워야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에 관해서도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가운데서 자기가 그것을 찾아서 획득(獲得)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비해서 지혜행의 비중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부분적으로 밖에 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수지·독송·설법을 겸하여 행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상태이므로 이것을 겸행(兼行)이라 한다.

다시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6바라밀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그러하여 그러한 사람에게는 큰 공덕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은 천태대사의 주장이었고, 원전인 법문에서는 "하물며 아지타어,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기억하면서 보시에 의해 보살행을 완성하고 지혜에 의해, 인욕에 의해, 정진에 의해, 선정에 의해, 지혜에 의해 보살행을 완성한다면 그 선남자 선여인이 불지(佛智)에 인도되기보다 더 많은 무량 무변 무수한 복의 행상을 낳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지혜를 제외한 5바라밀을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복은 '여래수량품'에 대한 한 순간의 고귀한 지장일념신해, 一念佛解에서 생겨나는 복의 행상의 백 천만 억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법화경> 기억 위에 보시 등 6바라밀행을 부가함에 의해 비로소 보살행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래 그 어떤 행보다도 더 큰 복은 <법화경>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들려주고 문자화하고 문자화시켜 경권 공양을 하는 등의 창도에 의한 복의 행상이 허공과 같이 무량 무변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후대에 <법화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부가된 것이 아닐까' 하고 일본의 법화종 정심사 주지 가리야(刈谷玄翁) 박사는 주장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지구촌은 좁은 세상

한동안 미국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케빈 베이컨의 6단계'라는 놀이여섯 다리만 걸치면 인간은 모두 다 아는 사이라는 속설을 반영한 놀이가 널리 유행했다. 이 놀이의 규칙은 아주 단순하다. 이 배우와 함께 출연한 다른 배우와의 관계를 1단계라고 했을 때, 관심 있는 미국 배우들이 케빈과 몇 단계만에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알아보는 놀이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미국 배우들이 여섯 단계 이내에 케빈과 연결되었고, 이는 미국 영화계가 생각보다 매우 좁은 사회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코넬대의 던컨 와츠와 스티브 스트로가츠도 이 점을 엄밀히 증명하여 좁

는 대도시의 경우 균형이 깨진 도로망 전체를 대폭 수정하지 않고도 좁은 세상 이론을 바탕으로 단지 몇 가닥의 새로운 연결도로를 건설하여 도로망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마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래 '제석천의 공전을 꾸미는 그물'을 뜻하는 인드라마는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온 세상으로 퍼지는 법계(法界) 진여 진리 그 자체의 현현으로서의 현실 세계를 뜻한다. 이 인드라마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물코만 잡아당겨도 온 우주에 두루 퍼져서 그물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



그림 · 문병성

인드라마 세계관 온몸 체득해야 우리는 '그물코' 해당...전체에 영향

은 세상 그물망(Small World Network)의 동역학이란 이론은 98년 6월 '네이처'에 발표되었다. 이들은 미국의 전철 배우 225,226명으로 연결망을 구성하고 각각 61명의 주변 사람들과만 국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는 단지 몇 가닥만이라도 불규칙적으로 가지를 뻗어 연결할 경우 모든 구성원들이 평균 3.65단계만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몇 가닥 불규칙적인 연결이 국소적으로 집합화된 '단련 사회'를 손쉽게 '열린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 이론을 비단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응용하기 시작했다.

보기를 들면 교통체증으로 시달리

그러나 어느 한 쪽 보석이 너무 밝아 균형을 잃게 되면 인드라마 전체의 조화가 깨지게 된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구촌(열린 좁은 사회) 사람들이 이러한 인드라마의 세계관을 온몸으로 체득해야 한다. 사실 그물코의 보석은 우리 각자를 상징하며 그물코 하나에 불과한 각자의 움직임이 인드라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부본인 동시에 전체인 참나(그물코의 보석)'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되어 관련된 <무문관> 제45차 '타시옥수(他是阿誰)' 공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산의 오조법연 선사가 말씀하셨다. 석가도 미륵도 모두 그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 자! 말해보라. 그런 낚시꾼? 우리 이웃 가운데 그(타)해 참나를 체득한 스승들이 쏟아져 나와 바람직한 인드라마를 구성할 때 지구촌은 일시에 더불어 함께 하는 인간 세상이 되리라'

서경대 물리학과
yypark@ccs.sogang.ac.kr

고침 392호 과학과 불교 읽고중
전기장의 양(음) → 전기장의 음(양)으로 바로잡습니다.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⑩ 분별공덕품 제17

겸행6도·정행6도의 공덕



말세 불제자는 스스로 배우고 닦아야 무리하지 말고 차츰차츰 믿음을 깊게

하면 지혜는 석존으로부터 직접 받고, 그 지혜에 기인하여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을 수행하면 되었다. 더욱이 그 수행도 석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격자 아래서 그 지도를 받으면서 행하는 것이었으므로 밤낮으로 감격과 법열 가운데 실행되었음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매우 커지게 된다. 그래서 '멸후의 5품'의 설법에서는 5바라밀에 지혜를 더하여 6바라밀을 행하도록 설하고 있다. 여기에도 부처님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여서 참으로 머리가 숙여짐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단계의 신앙인은 6도를 행하는 것도 그 사람의 경우에 따라 행하는 것이 다르고 그 정도도

도(道) 공부하는 이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시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法)은 전부 자성(自性)도 없고, 생겨나는 상품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空名)일 뿐이다.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오로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하다고 여기니,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설사 무언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이니, 보리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삼신불(三身佛)이니 지혜니 보살이니 부처니 하는 것들은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이다. 그대들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나아가 3승(三乘)과 12분교(分敎)는 모두가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낡은 종이오, 부처는 허깨비이며, 조사는 늙은 비구이다. 그대들도 또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 곧 부처라는 마구니에게 붙잡히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라는 마구니에게 걸박된다. 구한다면 모두가 고통이니, 일 없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온갖 이름과 모양은 마음의 바다 위에 일어나는 물결이다.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란 늘 물결들을 분별하고 해



아려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결이란 것은 인연이라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으로서,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로는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물이 있어서 여러 인연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실재하는 것은 오직 물일 뿐이고 물결은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⑫

일없는 것이 좋다

이 드러나 의식적으로 파악되지만 실재가 아니라 헛된 것이다.

마음공부란 우리 자신 즉 우리 마음의 실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저 생각하고 말함뿐인 이름과 모양의 헛된 물결 위에서 헛되어 분별하고 변화하는 것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부수어버리고, 본래 자신은

"헛된 이름을 진실로 여겨 집착하지 말라"

헛된 것이다.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름과 모양으로 분별되지 않지만, 진실로 실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결은 겉으로는 이름과 모양으로 분별되지만, 그저 이름과 모양뿐이요 실재하는 것은 물이지 물결이 아니다. 다시말해 실재하는 것은 물이지만 물은 이름과 모양으로 뚜렷이 드러나지는 아니하므로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으며, 물결은 이름과 모양으로 뚜렷

생기고 멸함이 없는 진실한 물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바로 지금 마음의 물을 경험해보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은 물결일 뿐이므로 물결을 통하여 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마음의 물이 전혀 인연에 응하지 않아 거울처럼 잠잠히 있다면, 의식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경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을 경

협하려면 인연따라 일어나는 의식의 물결을 보되 인연따라 달라지는 모양으로는 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인연의 모양으로 물결을 치든 그 모양에는 상관치 말고, 그저 섬 없이 움직이는 물결이 곧 물임을 경험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글을 읽고 있는 의식의 물결 위에 다양한 모양의 글자가 나타나 지나간다. 이제 종이 위에 새 글자가 나타나면 즉각 즉각 반응하여 나타나는 의식의 물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자. 바로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나오는 곳이 없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여전히 물결은 나오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찾으면 물결뿐이지만, 찾지 않으면 늘 물을 경험하고 있다. 물결이 바로 물이므로, 찾으면 의식으로 떨어지지만 찾지 않고 쉬면 한 순간도 모양 없이 흘러가는 마음의 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 없이 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김태원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원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상선원 매주 토요일 수련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상선원) 011-9520-0054(이정화) http://www.mindtree.net/

간(肝)이

간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 비갈린 자연산 참다슬기 삶은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정적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법회 안내

- ▷ 매일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초교리반
-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찾아오시는 길: 이마로 우봉본사, 불경헌명당, 해인선원 불교대학

예인선원은 불교공익복지지원수련 건립을 위해 안분하 안 평 불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불가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국민은행: 682-0251-628 / 예금주: 예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 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예담승복 직원일동 -

1 직선 조끼 비치 W160,000	2 동방 비치 W160,000	3 두루막 W140,000	4 W60,000
5 직선 조끼 비치 모직누비 W320,000 순면누비 W250,000	6 동방 비치 모직누비 W320,000 순면누비 W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W250,000 순면누비 W160,000	
8 셔츠 W50,000 (자이언트 라운드넥) 비지 W60,000	9 셔츠 W30,000	10 셔츠 W30,000	

※ 장님, 기성, 마방 및 가마의류는 뒷부분은 원소입니다.

해동승복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053) 741-8131 FAX: 053) 741-8132 H.P: 011) 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제품: 오가피추출액, 묘목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 3리 9-5

서북오가피농장

전화: 031-682-5033
팩스: 031-682-5034